

광주 구청들 선거 현수막 처리 '골머리'

후보들 일주일 때도 철거안해 한줄로 이으면 광주~무안 거리 동구는 재활용 위해 따로 보관 다른 구청들은 비용 들여 소각 낙선자들 철거 지연 요청도



지난 14일 광주 남구청 공무원들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6·13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거 현수막은 설치 당사자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들이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선인들의 당선 축하 인사 현수막까지 곳곳에 내걸리면서 광주 도심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철거한 현수막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들은 환경오염 우려에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소각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지역 후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4710장(표지 교부 기준)에 이른다. 광주시장, 교육감 후보 등을 담당하는 광주시선관위에 등록한 수가 1330장으로 가장 많았다.

구청장, 사·구의원 등을 담당하는 각 구선관위에 등록된 수는 북구 864장, 광산구 850장, 남구 576장, 서구 568장(국회의원 후보 포함), 동구 522장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3만8192장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 규격은 가로 10m·세로 1m 이내로 광주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을 한줄(총 47.1km)로 이으면 광주공항~무안공항간 직선거리(42km)를 훌쩍 뛰어 넘는다. 면적으로는 축구장의 약 6배(4만7100㎡)에 이른다.

각 자치구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현수막 철거에 들어갔다. 일부 출마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현수막을 제거했지만, 대부분은 현수막 철거에 소극적이다. 현수막을 하루라도 더 걸어두면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낙선자의 경우 다음 선거출마를 위해 '이름·얼굴 알리기용'으로 구청에 조금이라도 늦게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청 담당자들도 낙선자에게 냉정하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는 선거 현수막을 철거할 의무가 없지만 '아직까지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자체 철

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치구가 철거한 현수막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체의 70%(3300여장) 수준까지 수거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동구는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총 900여장 중 700여장을 제거했으며, 나머지 4개구는 현재까지 곳곳을 돌며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 문제는 수거된 현수막의 처리다. 서·남·북·광산구는 폐기를 처리업체에 의뢰해 불법광고 현수막 등과 함께 소각하고 있으며 동구는 재활용을 위해 따로 모아 보관하고 있다. 각 구마다 연간 현수막 소각 비용은 400만~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서·남·북구가 소각을 의뢰하고 있는 폐기물업체 '명성환경' 관계자는 "평소 하루

에 1t 트럭 2대 분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직후 현재 5대 분량이 들어와 소각기계를 풀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한 현수막을 나누시, 화순군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민들은 밭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 비닐보다 쉽게 찢어지지 않는 현수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사 자재용 마대, 예코백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일선 구에서 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광주시가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현수막 재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버지 친구 따라 나섰던 강진 여고생 사흘째 실종

아버지 친구는 숨진 채 발견 경찰 500여명 투입 수색작업

강진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아버지 친구를 따라 나섰던 여고생이 사흘째 실종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강진군의 한 면에 사는 A(16·고등학교 1학년)양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은 A양이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17일 새벽 12시 3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집을 나서기 전 친구들과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에서 '아버지 친구와 함께 해남으로

아르바이트하러 간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서 "A양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 B(51)씨를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B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한 철도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의 실종과 B씨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난 16일 밤 11시께 A양의 스마트폰 GPS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자수지 일대와 야산에서 헬기 2대와 50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군산 주점 방화 33명 사상자 낸 용의자 체포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밤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드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

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웃 같아입는 것 도와주겠다며 사우나서 지체장애인 지갑 슬쩍

광주서부경찰은 사우나에서 만난 장애인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35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박모(39·지체장애 1급)씨가 옷장문을 열어놓고 스킨션 등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틈을 이용해 박씨의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우나에서 맞닥처 마주쳐 박씨와 안면이 있었던 김씨는 '웃을 같아입는 것을 도와 주겠다'며 박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신용카드 중복 결제한 한정식집 사과는커녕 변명 일관 '눈살'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X한정식에서 손님 의 신용카드를 중복 결제를 해놓고도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 나 빈축.

○18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예X한정식에서 일행 5명과 17만원 어치 점심을 먹고 신용카드를 결제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1분 간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총 34만원이 결제돼 있었던 것.

○해당 식당에 전화를 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는 A씨는 "식당측에서 중업원의 기기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듯 하

다. 주말이라 결제취소도 어렵다고 말한 뒤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월요일에 해당 신용카드를 교체해 놓고도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 나 빈축.

○예X한정식 관계자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바꾼 탓에 조작이 미숙해 발생한 일로 기준에도 있었다"면서 "이번 건은 중업원이 다른 손님이 미리 결제한 것을 모르고, A씨의 카드도 습식카드를 다시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역대 최대 규모 650억원대 '가짜 영광굴비' 적발

중국산 참조기 5000t 영광굴비 '둔갑' 백화점·홈쇼핑 유통 검찰 17명 기소... 영광군, 가짜 영광굴비 유통 차단 안간힘

10년 가까이 수백억원대 가짜 영광굴비를 판매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18일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0)씨 등 15개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중국산 참조기 가격만 해도 2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이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장에 판

매한 금액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최소 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당국에 적발된 가짜 영광굴비 사건의 범행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의 유통업체 납품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영광굴비는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의 향구인 법성포 앞바다에서 잡은 참조기를 법성포 해풍으로 말린 것을 지정하는 데, 이번 유통된 가짜 영광굴비는 중국산 참조기를 냉풍기 등 인공적인 건조 방법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참조기는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많지만, 중국산 참조기는 크기가 대체로 비슷해서 상품으로 포장하면 겉보기에 좋아 가짜 영광굴비를 제조·유통하는 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산 참조기 수입 물량 중 상당수가 가짜 영광굴비를 만드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산 참조기의 수입 물량은 연평균 3만t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광군은 가짜 영광굴비 사태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생산자 이력제와 진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짜 영광굴비 유통 차단에 나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가 원룸 매매 [신축 전문]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1층 ★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5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600만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매가 8억5천만
- ③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19평 (보5백 월33만) ▶매가 6천5백만
-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매가 11억2천만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매매가 9억
-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신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개) ▶매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 1) 북구 두암동 (3층 상가주택) 토 45평 건 93평 (4차선도로 접) ▶감정가 2억8천 → 최저가 2억8천
- 2) 남구 백운동 (3층 빌라) 토 65평 건 145평 (코너 위치)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5천
- 3) 화순 도곡면 (숙박시설) 토 617평 건 856평 객실 56개 (월5,000만 예상) ▶감정가 26억 → 최저가 6억
- 4) 북구 문흥동 (빌라) 토 57평 건 101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토지 추천

-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시세 18억 → 최저가 6억6천
- 2) 북구 문흥동 토 378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3) 남구 월산동 100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7천9백
- 4) 나주시 송월동 171평 상집지 ▶감정가 8억4천5백 → 최저가 4억7천
- 5) 장성군 장성읍 90,910평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
- 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 1억2천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신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매매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 A.P.T, 주택 | 공장/기타

- ① 수원지구 (5층중 2층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 ② 북구 용봉동 (2층 중 7층 상가) 감정가 8억7천 → 최저가 2억9천5백
- ③ 남구 남동 (상가주택)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④ 남구 봉선동 (4층 중 7층 상가) 감정가 18억 → 최저가 12억6천
- ⑤ 광산구서부동(투룸) 토 56평 건 30평 감정가 1억8백 → 최저가 7천2백
- ① 상무 비탈마을주공 아파트 (25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
- ② 서구 용봉동 중영아파트(20평) 시세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 ③ 남구 진동동 현대아파트 (40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
- ④ 북구 신정동 한양아파트 (25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 ⑤ 서구 차평동 대주아파트 (20평) 시세 1억 2천 → 감정가 1억
- ①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19평) 시세 1억 → 최저가 7천2백
- ② 광산구 신정동 부영아파트(34평) 시세2억 1천 → 최저가 1억4천
- ③ 광산구 오성동 공영토 500평 건 500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9백
- ④ 광산구 월산동 공영토 2000평 건 2500평 감정가 89억 → 최저가 4억
- ⑤ 서구 영동 (숙박시설) 토 36평 건 42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010-7384-7800 010-6670-9800